



산림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3.(목) 09:00	배포 일시	2022. 11. 3.(목) 09:00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자	과장 안병준 (02-961-2741)
	임산소재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정한섭 (02-961-2744)

버려지던 목재 부산물, ‘친환경 에너지’ 로

- 국립산림과학원, 제5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11월 2일(수),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저장 소재 및 리그닌 활용 기술’을 주제로 「제5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다섯 번째를 맞이한 「목재 미래소재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목재의 신소재 응용 기술 연구 동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전문 연구모임이다.
- 이번 포럼은 산림바이오매스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산업계 및 연구소의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노광철 박사와 ㈜리그넴 박오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 소재’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결과들을 공유하고, 공정 부산물로만 취급되었던 ‘리그닌’ 성분을 소재화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여기에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박사는 리그닌 성분을 에너지 저장용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국세라믹기술원 노광철 박사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에너지 저장 소재 연구 동향과 슈퍼커패시터용 활성탄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 슈퍼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 시 고출력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 ㈜리그넴 박오진 박사는 리그닌 성분을 활용한 소재 연구,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 동향과 플라스틱 충전제 등 실제 상용화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산림바이오매스는 이미 소재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체 가능성이 검증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이용한 차세대 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서 산림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1. 세미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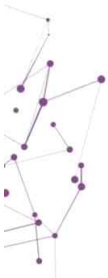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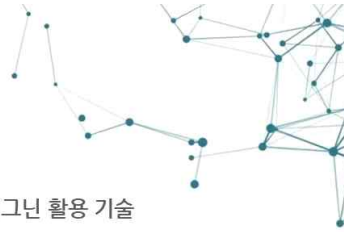




제5회

목재미래소재포럼

주제 :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저장 소재 및 리그닌 활용 기술



- 시간 : 2022. 11. 2.(수) 14:00~16:30
-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동 임산자원회의실 (3층)
- 연사 : 노광철 박사 (한국세라믹기술원 수석연구원)
「바이오매스 기반 슈퍼커패시터용 활성탄」
박오진 박사 (㈜리그넘 소장)
「SSEIF, Lignum's Biobased Functional Filler, through Zero Waste Biorefinery」
이수민 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저장 소재 개발 연구」